

천주교인 숨겨줬던 주어사 ‘터만 남아’

종평위 ‘종교 평화 순례길’

시선 닿는 곳마다 천주교 성지임을 알리는 꽃말과 안내판이 가득했다. 200여 년 전 조선시대 박해받던 천주교인을 숨겨주다 폐사된 사찰이 있던 곳임을 알리는 흔적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다. 나무 사이사이 간간히 달린 연등만이 이곳이 불교와 관련된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난 9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경기도 여주 산북면 주어사지(走魚寺址)를 찾았다. 주어사지는 한국 가톨릭, 즉 천주교 발상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지만 불교에서는 천주교인을 보호하다 아픈 대가를 치른 곳이기도 하다. 18세기, 주어사에 주석하던 스님들은 박해를 피해 산으로 숨어들어 천주학자들의 은신을 도왔고 천주학자들은 스님과 사찰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최초로 강화회를 열었다. 이 때의 강화회는 한국 천주교의 시발점이 됐지만 주어사는 이들의 은신을 도왔던 이유로 폐사됐다.

이날 종평위 위원장 만당스님과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등 40여 명의 순례단은 종교 간 화합과 상생

천주학자 은신 돕다가 폐사돼
천주교 성지화…불교 흔적 지워
갈등 아닌 상생 장소로 가꿔야

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주어사지를 찾았다. 그러나 천주교 성지화 작업이 한창인 주어사지에는 사찰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주어사지로 오르는 길목 곳곳에는 ‘천주교 산북성역화위원회’가 설치한 흰색 나무 팻말이 눈에 띄었다. 여주시가 설치한 안내판에는 “앵자봉에 있는 절터로 권철산 등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강학을 했던 천주교 전파의 요람지로서 한국 최초로 천주교가 전파된 곳, 가톨릭 교회 성역 순례길로 지정돼 많은 가톨릭 교인이 방문하고 있음”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순례단이 40여 분을 걸어 올랐을까. 신도 허만해 씨가 “어머머 이게 웬일이야”하고 중얼거렸다. 주어사가 있던 폐사지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주학자들의 모습을 딴 포토존이 버젓이 서

있었다. 허 씨는 “어려울 때 스님들이 먹여주고 숨겨주고 했던 은혜도 모르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어사지를 둘러싼 신도들 간 갈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2년 전에는 주어사지를 찾은 두 종교 신도들 간 직접적인 마찰도 있었다. 2014년 당시 주어사지가 천주교 발상지로만 알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는 주어사지로 오르는 길목에 연등을 달았고, 미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산북공소 성당 신도들로부터 연등을 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제2교구신도회가 “사찰이 있던 곳에 연등을 단 것이 무슨 문제냐”며 이를 거절하면서 소란은 일시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여 년 전 두 종교 간 화합의 상징과도 같던 곳이 이제는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만당스님은 “무엇보다 스님과 신도들이 주어사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어사지를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장소로 가꿔 갈 수 있도록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주=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주어사지를 찾았다. 주어사지는 한국 천주교학자들이 최초로 강학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폐사를 당한 아픔을 지닌 곳으로, 종평위는 이날 주어사지가 갈등의 장소가 아닌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장소가 되길 기원했다.

돈으로 역사 지우기…위안부 합의는 무효



이경민 기자의
현장에서
kylee@ibulgyo.com

세간의 이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쏠려있는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야금야금 진행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지난달 거출금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 할머니 23명에게 현금 지급을 마쳤다. 일본이 내놓은 거출금은 ‘배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 위로의 성격을 지닌다. 파편치한 만행으로 한국의 어린 소녀들을 짓밟은 일본 정부가 불명에 역사를 푼돈에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 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정부의 패착이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불통

이 빛은 참사다. 지난해 12월28일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 당사자와 인권단체, 야권의 반대와 국민의 원성 속에서도 ‘최종적·불가역적’이라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였다. 이 합의에 따라 ‘역사의 산 증인’으로 70년을 감내해왔던 피해 당사자들의 세월은 10억엔이라는 혈값에 팔렸다.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우익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옥죄어온 위안부 문제로부터 해방됐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설 자리를 잃었다.

이 합의에 따라 출범한 재단은 피해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접근해 역사를 돈으로 팔리고 회유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힘써온 단체와 활동가들의 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거출금 수용 의사를 물으며 ‘돈을

받으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눔의집 할머니들은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없이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고령과 노환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들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쳐가고 있다.

지난 6일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39명으로 줄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종적·불가역적’이라 낙인찍은 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꽃 같은 어린 소녀들을 무참히 짓밟은 일본의 만행이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역사다.

포교사단, 1500만원 기탁 “승려복지 정착 도움 되길”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운동장에 조계종 스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승려복지기금 15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기금은 전국 지역단 포교사들이 실시할 모연한 것으로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전달돼 스님들의 복지 향상 지원에 쓰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승려복지는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승가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



라며 “종단에서 승려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포교사단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윤기중(사진) 포교사단장은 “종단에서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포교사단에서도 종단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불교인재원 ‘공부결사’로 새해맞이

12월26일~3월27일

중아함경 신심명 등 강의

제가불자들의 공부결사를 주도하고 있는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경전과 선어록을 교재로 한 새로운 강좌를 마련했다. 불교인재원은 “일반 시민의 바른 불교 공부를 돕고자 2600여 년의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 말씀인 경전과 주석서인 논서, 그리고 조사어록 중 가장 핵심이 되는 50여권을 선정했다”며 “1차로 2016년 12월26일부터 2017년 3월27일까지 <중

아함경> <반야심경> <능가경> <신심명> <종도가>를 공부하는 강좌를 개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강의는 총 13주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스님,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한국선학회 회장), 조준호 고려대 철학과 연구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불교를 공부하여 정경을 세우고 생활에서 수행 실천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영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신도교육 체계 안내

입교(발심품계)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와 사찰 및 수행 활동 등 신도로서 사찰과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신도등록(발심품계등록)

전문교육(부동품계)

기본교육 이수 후 핵심신도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 종단인가 불교대학 1년 96시간 이상

재교육(부동품계)

신행활동과 신심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평생교육 수행활동, 불사참여, 연수 등 신도임원활동

지도자교육(선혜품계)

종단 신도 지도인력형 형성을 위한 교육 포교원 지정 교육

발심품계

행도품계

기본교육(행도품계)

불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기 위해 배워야 할 불교 교육의 길잡이 과정 3개월 이상(12시간 이상 1년 이내)